



모이자!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강위 소식지 VOL. 5



발행 : 정진홍 | 발행일 : 2026.10.13.(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더 많이 듣고, 더 가까이 만나며 화신정공지회 다시 조직한다

현장 선전전 강화... 한 사람부터 다시 조직하는 사업 본격 추진



[경주=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소식]

금속노조 경주지부 화신정공지회는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 화신정공 현장에서 조직활동 활성화와 현장 홍보 강화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번 선전전은 정체된 조직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 현장 조합원에게 민주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화신정공지회는 2025년 7월 20일 공식 설립 총회를 열고 경주지부 31번째 지회로 첫발을 내디뎠다. 지회 설립은 사측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 노조 무력화 시도에 맞서 사무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선 결과였다.

지회 설립 이전 화신정공 사무직은 조합 가입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주임 직급 이하로 제한되는 구조적 차별을 겪어왔다. 정당한 노동권 행사조

차 눈치와 위축 속에서 진행됐고, 강제 연차 소진과 인사·복지 차별 등 부당한 대우도 있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가입과 지회 설립으로 답했다.

설립 이후 지회는 경주지부와 함께 사측의 탄





압을 뚫고 선전투쟁을 진행했으며, 기초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쟁취했다. 또한 경산공장에 지회 사무실을 확보하며 조합원이 모이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설립 초기 상황은 쉽지 않았다. 사측은 조합원 개별 면담과 회유로 불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며 지회가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남은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결하며 조직을 지켜왔다.

화신정공지회는 현재 조직활동을 다시 활성화하고, 민주노조의 필요성을 현장에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전전에서 인위적 잔업 금지, 연차 강제 소진 중단, 주간 연속2교대 완성, 주휴수당 통상임금 반영, 임단협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와 다수결 원칙 보장을 주요 요구로 제기했다.

이번 활동을 단순한 홍보가 아니다. 현장의 불만을 조직의 요구로 모으고, 한 사람씩 다시 만나기 위한 출발이다. 노동조합은 설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이 지회를 믿고 찾아올 수 있어야

하고, 현장의 문제가 지회를 통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화신정공지회는 조합원 목소리를 듣는 조직,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조직, 한 사람부터 다시 조직하는 지회를 목표로 세웠다. 또한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합원이 편하게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지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중순 현장직 사무장의 회사 복귀 이후 기존 노조의 문제점을 현장에 알리고 조직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지부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해 현장 중심의 조직력과 결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화신정공지회는 더 많이 듣고, 더 가까이 만나고, 한 사람부터 다시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화신정공지회가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현장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고, 민주노조 확대와 현장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다.



메탈블러드 혈맹

